



## 2) 여름

### 1. 거문고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우리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견우, 직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8월이 거의 지나갈 무렵 나타나는 이 자리는 거문고자리라고도 하며 그중 가장 반짝이는 별을 직녀성이라 부른다. 서양에서는 베가라고 부르는 이 별은 천문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별은 0.0의 등급으로서 다른 별의 기준이 되며 그 뒤로 다른 별들의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다. 8월 말에 머리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베가성을 우선 찾아야 한다. 이는 직녀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별을 중심으로 거문고의 모양으로 일그러진 사각형을 찾으면 된다. 직녀성 옆의 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백조자리의 가장 밝은 별인 데네브도 볼 수 있다. 또한, 그 반대방향인 남쪽에는 독수리자리가 나타나는데 독수리자리의 가장 밝은 별인 알타일이 있다. 이는 견우성이다. 이 세 개의 별을 연결하면 바로 여름의 대 삼각형이 된다. 여름방에 은하수가 멋지게 흐르는 것이 보인다면 그 속에 푸른색의 직녀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직녀별이 거문고자리를 구성한다.

#### 별자리 이야기

옛날 올페우스라는 거문고의 명수가 있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 에우뤼디케가 있었으나 어느 날 뱀에 물려 그만 죽고 말았다. 너무 슬퍼한 나머지 올페우스는 지옥의 왕 하데스를 찾아가 아름다운 거문고의 선율을 들려주었다. 하데스는 깊이 감명받아 지상에 내려올 때까지 절대 뒤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 아래 아내를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올페우스는 의구심이 들어 지상에 거의 다 왔을 때 힐끔 뒤를 돌아보았고 아내는 다시 지옥으로 끌려갔다. 이에 상심한 올페우스는 매일 거문고를 켜며 여자를 멀리하였고 이에 화가 난 여자들은 그를 찢어서 죽이고 거문고를 강물에 떠내려 버렸다. 이를 불쌍하게 여긴 제우스는 거문고를 하늘에 건져 올려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

## 2. 백조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늦여름에서 초가을 저녁 은하수 가운데 큰 십자 모양을 한 다섯 개의 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별들이 바로 백조자리이며 가장 밝은 별은 데네브라 부르고 백조의 꼬리에 위치한다. 이 데네브와 베가, 그리고 알타일을 연결하여 여름의 대 삼각형을 이루며 희랍의 엘라토스테네스가 2000년 전부터 백조자리라 칭하였다. 그리고  $\gamma$ 성과  $\beta$ 성 사이에는 블랙홀(Black Hole)이 위치하여 더욱 유명하며 이것을 백조 x-1이라 부른다. 이것은 x선을 방사하여 며칠에 한 번씩 밝기가 변하며 두 개 중의 한 별이 다른 한 별의 대기를 흡수하면서 블랙홀의 효과가 난다고 한다. 9월 하순경에 머리 위로 떠오르는 십자(十字)형의 백조자리는 찾는데 그리 힘들지 않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앞서 소개한 여름의 대 삼각형을 찾는 방법이다. 이것도 은하수를 중심으로 가장 밝은 별 셋을 찾으려 하는데, 서로 인접해 있는 백조, 거문고, 독수리의 세 별자리에 박혀 있는 1등급 성을 골라서 연결시키면 삼각형을 이룰 수가 있다. 그 정점에 있는 데네브가 속해 있는 별자리가 바로 백조자리이다. 이 백조자리의  $\alpha$ ,  $\beta$ ,  $\gamma$ ,  $\delta$ ,  $\epsilon$ 의 다섯 개의 별들을 이으면 하나의 십자가가 생기는데 이것은 남쪽의 십자에 대하여 [북쪽의 십자성] 이라고도 부른다. 백조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은 뚜렷이 밝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북두칠성의 국자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만나는 두 별을 이어서 북두칠성 전체의 두 배 크기 정도를 연장한다. 또 북극성과 직녀별이 직각 삼각형을 이루는 곳으로도 백조자리를 찾을 수 있다.

### 별자리 이야기

친구를 사랑한 소년의 이름 키그누스는 서양에서 백조를 뜻한다. 태양의 신 아폴론에게는 페톤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아들이 친구에게 놀림을 받는 일이 있었다. 아폴론의 아들이면서 누추한 집에 산다는 것이었다. 이에 뒤질세라 페톤은 아버지의 마차를 끌고 오겠노라고 당당히 엄포를 놓았으며 다음날 아폴론의 허락을 받고 친구들에게 마차를 끄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이 자신이 태우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마구 달렸으며 이에 애를 먹고 있는 페톤을 불쌍하게 여긴 제우스가 페톤을 에리다누스 강으로 떨어뜨렸다. 이에 친구들은 강에서 페톤을 찾다가 포기하였으나 키그누스라는 소년은 끝내 혼자 남아 페톤을 찾아내었다. 이를 가상하게 여긴 제우스는 키그누스를 백조로 만들어 하늘에 올려 보내었다.

### 3. 독수리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독수리자리는 프톨레마이오스 때부터 채택된 오래된 별자리이며 여름 하늘 남쪽 은하수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중 가장 밝은 알타일 별은 나는 독수리란 뜻이며 이 근처에 성운과 성단을 아주 많이 볼 수 있다. 여름 하늘 머리 위의 백조자리를 우선 찾으면 그 은하수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백조자리와 방향 모양 등이 비슷한 별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독수리자리이다. 또 한 가지의 방법으로는 거문고자리의 베가성과 독수리자리의 알타일 성과 백조자리의 데네브를 연결한 후 이중 가장 남쪽에 속해 있는 별자리를 찾으면 그것이 독수리자리이다. 독수리자리는 직녀별, 견우별과 더불어 은하수 속에서 큰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 별자리 이야기

옛날 트로이아를 세운 트로스의 아들 가뉴메데스는 어떠한 예쁜 여자라도 비교가 안될 만큼 아름다운 소년이었다. 이 소년을 손에 넣고 싶었던 제우스는 독수리로 변해 가뉴메데스를 잡아왔으며 그에게 영생과 젊음, 그리고 아름다움을 평생 간직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리하여 가뉴메데스는 제우스의 옆에서 술잔을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 가지 설인데 또 다른 몇 가지가 있으나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전해 내려온다고 한다.

#### 4. 궁수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궁수자리는 반인반마인 켈타우로스의 케이론을 기리는 별자리로서 여름이 끝날 무렵 남쪽 하늘 아래 은하수가 짙게 보이는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이 자리는 북두칠성과 모양이 비슷한 남두육성이며 서양에서는 밀크 디퍼(milk dipper)라고 부르는 아기 스푼과 닮았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북두칠성을 죽움에 대한 별자리라 생각하며 남두육성을 삶에 대한 별자리라 생각해왔다. 이 궁수자리는 전갈자리의 동쪽에 있으며 이 전갈자리의  $\epsilon$ 성으로부터 동쪽에 s자를 그리는 꼬리 부분에서부터 그려 나가게 된다. 이중 11개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자리 가운데서도 가장 잘 보이는 것은 남두육성이다. 그리고 이 별자리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남쪽의 왕관자리로부터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된다. 궁수자리는 독수리자리의 남쪽에 있으며, 주전자 모양의 밝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밤하늘에 은하수가 뿜쳐있는 곳이 보인다면 그 곳이 궁수자리이다.

##### 별자리 이야기

그리스 신화를 보면 켈타우루스라는 반인반마의 족속이야기를 볼 수가 있다. 그중 하나인 우수한 학자 케이론은 헤라클레스와 싸우던 도중 올뱀 휴도타의 독이 든 화살에 다리를 맞았고 그 아픔은 의학에 뛰어난 케이론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케이론은 자신의 몸을 거인의 신인 플로메데우스에게 양도하고 죽었다. 그러나 이를 불쌍하게 여긴 제우스는 그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하늘에 별자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전갈자리와 대치하는 궁수자리에는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속하며 케이론의 성격을 받아 속박당하기 싫어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자유인이라 한다.

## 5. 뱀주인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남쪽 하늘에서 제일 큰 전갈자리보다 북쪽에서 더 크게 펼쳐지고 있는 뱀주인자리는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기리기 위한 별자리이며 이 근처에 밝은 별 또한 없어 뱀주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아주 힘이 든다. 그러나 뱀 별자리와 함께 전체의 모습을 잡는다면 그 규모가 상당히 웅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6개의 뱀 머리와 3개의 꼬리를 잡고 있는 뱀주인자리는 그 중심축과 함께 10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심축은 2등급인 라스알 하계라는 별을 가진 자의 머리의 뜻을 지닌 성이다. 거문고자리의 베가로부터 남서쪽으로 선을 긋고 전갈자리의 안타레스로부터 북동쪽으로 선을 긋다보면 가장 밝은 별이 하나 있는데 이별이 바로 라스 알하계 성이다. 뱀주인자리의 길잡이별은 직녀별과 견우별이다. 뱀주인자리의 첫째별이 이 두 별과 이등변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 별자리 이야기

뱀주인자리의 이야기 주인공은 용감한 사나이 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사였다. 아폴론과 텃사리아의 공주 콜로니스 사이에서 태어나 일찍이 부모를 떠나 케이론에게 의술을 교육받은 아스클레피오스는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 불렸으며 희랍 최고의 의사로 불렸다. 그러나 이 뛰어난 의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점점 줄었고 심심해진 지옥의 신 하데스는 제우스에게 고자질하여 아스클레피오스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자 제우스는 벼락을 내리쳐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였으나 너무나도 뛰어난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하늘로 불러올려 뱀주인자리가 되었다.

## 6. 전갈자리

### 특징 및 찾는 방법

한여름 밤 지평선 위로 여름을 대표하는 전갈자리의 큰 S자를 볼 수가 있다. 은하수가 머리 위에서부터 빛의 고리처럼 연속적으로 남쪽 지평선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마치 빛의 홍수와도 같다고 느낄 수 있다. 옛날부터 주목 받아온 전갈자리는 태양의 겉보기 궤도인 황도의 8번째이며 이렇게 멋진 별자리는 흔히 찾아볼 수 없으며 혹자들은 별의 예술이라고도 칭한다. 전갈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별자리는 붉은색의 안타레스라는 1등급성과 함께 3등급성이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다. 은하수가 장엄하게 지평선으로 펼쳐지는 남쪽 하늘에 자리 잡은 전갈자리는 주위의 밝은 별자리가 없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쪽에서 가장 밝은 안타레스 성을 발견하면 그 주위로 붉은색의 15개 별들이 S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위로 유명한 구상이나 산개성단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전갈자리는 뱀주인자리의 남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붉은색의 밝은 별로부터 S자 모양의 별자리가 전갈자리이다.

### 별자리 이야기

크레타 섬의 오리온은 주로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와 같이 사냥을 하였는데 하루는 아르테미스에게 자랑을 하였다. 세상에 자신이 죽일 수 없는 동물은 없노라고 하자 이를 듣게 된 헤라는 화가 나서 크나큰 전갈을 보내어 맹독 단 한 방에 오리온을 죽였다. 그러자 이 공로로 인해 전갈을 하늘로 올려 보내어 전갈자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전갈자리가 나타나면 오리온자리는 서쪽 지평선으로 숨기 때문에 이를 사람들은 그때의 일이 아직도 무서워 오리온이 도망친다고 한다.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속하는 전갈자리는 침착하고 신중한 판단력을 지닌다고 한다.